

## 최신 환기시설로 질병피해 최소화한



둔차종돈장 전경

취재 : 박정렬 기자

UR타결의 태풍은 우리 농촌을 더욱 더 위축시키고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소규모 부업농으로서의 양돈은 존속이 어렵게 되었으며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시책은 왠지 공허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최신 슬러리시스템과 이상적 환기시스템을 채택해 관리의 생력화와 질병피해의 최소화를 실현한 농장이 있다.

경북 경산에 있는 「둔차종돈장」(대표 : 박해준, 경북 경산군 진량면 광석동 539)이 바로 그곳.

경산지역에서 15년간 양돈을 해온 박해준 사장과 그의 동생이자 부사장인 박선준 씨, 그리고 4명의 직원들은 오늘도 우수 종돈 보급과 개량에 여념이 없다.

「둔차종돈장」은 경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앞서가는 농장으로 이름이 나있다.

이는 박 사장 형제의 오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둔차종돈장」은 육성돈사, 비육돈사, 임신돈사, 분만돈사 3동, 웅돈사 2동 등 모두 8개의 돈사를 가지고 있는데 분만사를 제외한 모든 돈사에 슬러리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88년에 슬러리시스템을 처음 도입하기 시작 '90년에 완공했는데 이로 인해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히 모든 돈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당시 슬러리시스템을 설치하는데 들었던 비용은 평당 40만원 정도. 노동력 절감효과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한다.

슬러리 피트의 깊이는 2.2m, 비교적 깊게 설계해 분뇨배출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한다. 돈방바닥은 주로 콘크리트 슬랏으로 설치되어 있다.

슬러리시스템 외에도 「돈차종돈장」에서 돋보이는 것은 환기시스템이었다.

### 입배기환풍기로 환기 해결

분뇨로 인한 악취와 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열손실을 최소화하여 돼지의 질병을 줄이기 위해 「돈차종돈장」은 아세아축산기구사(대표: 엄문중)가 개발한 입배기환풍기를 채택, 사용하고 있었다.

입배기환풍기는 입기파이프와 배기파이프가 일체로 되어 있어 팬이 돌아가면 바깥쪽 입기통으로는 외부의 신선하고 찬 공기가 들어오게 되고 안쪽의 배기통으로는 돈사 내부를 한 바퀴 돌은 탁하고 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입배기환풍기는 입기시설과 배기시설이 한 몸으로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저렴하고 입배기환풍기 한 개로 30~40평의 환기가 가능해 효율이 높으며 배기통 스테인레스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입,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져 열손실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박선준 부사장과 「돈차종돈장」 직원들. 적은 인원이지만 현대화된 시설 때문에 충분히 전문사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비육사에 설치된 입배기 환기시스템. 입배기환풍기 6개로 220평 돈사의 환기가 충분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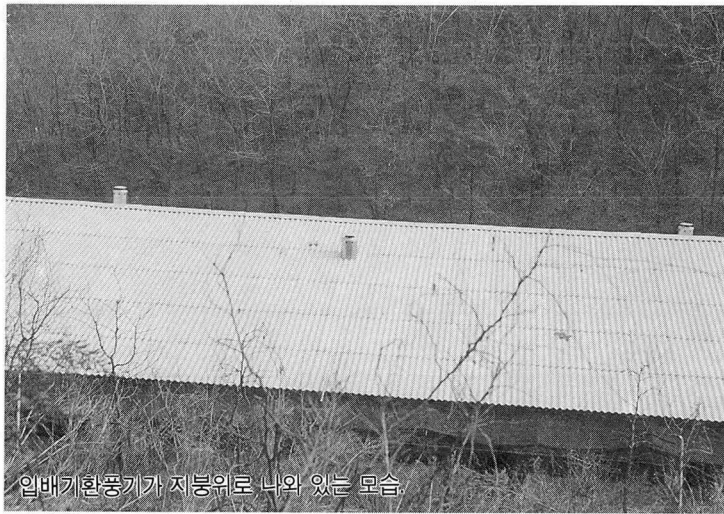
한 소음이 적어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220평이나 되는 비육사에 입배기 환풍기 6개만으로 환기를 해결하고 있었다. 다만 분만사와 자돈사에는 보온을 위하여 열풍기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

입배기환풍기는 돈사바닥으로부터 2~3m높이로 설치하고 돈사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고 한다. 또한 「원치커

튼」으로 환기를 돕고 있었다.

입배기환풍기는 '92년과 '93년에 본격적으로 설치, 가동했는데 그 결과 '91년과 '92년 흉막폐렴 등의 호흡기질병으로 3~4일에 1두 정도씩 돼지들이 폐사했던 질병피해가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슬러리시스템과 입배기 환기시스템으로 박 사장을 포함한 6명의 적은 인원이 전문사와 돼지들을 관리하는데도 별로 바쁘다



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박선준 부사장은 과거 힘들었던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 돼지값이 폭락했을 때 비싸게 구입한 종돈을 운반하다가 차가 고장나 더위를 이기지 못한 돼지가 죽어버려 형제가 길거리에서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던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또한 이제는 전업농 이상의 규모로 시설을 현대화하여 양돈을 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며 다른 양돈장들도 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긴안목으로 보아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현재의 문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선준 부사장은 선풍기 인력난이라고 대답했다. 직원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농장을 자주 떠난다는 것이다.

돈분이 묻어 있는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무선전화기를 들고 농장입구에 나와 서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던 모습, 기자일행에게 길안내를 해주고 농장으로 돌아가던 박선준 부사장의 뒷모습은 UR과고가 아무리 높고 세차더라도 박 사장 형제와 같이 양돈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양돈인들이 있는 이상 우리의 양돈이 결코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

